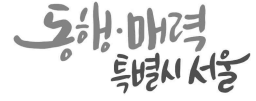


이 자료는 2023년 4월 7일(금)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동정자료



■ 매수 : 2매 ■ 사진 :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(press.webhard.co.kr) ID/PW:press1

담당 :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	2133-6205	신문팀장	2133-6207	담당자	2133-6253
박 경 환		천 세 은		조 향 윤	

오세훈 시장, 기후위기 대응 '탄소중립 실질적 이행' 논의하는 '수요포럼 정책 토론회' 참석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(금) 14시,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장으로 서울시의회 서소문1청사(2동) 제2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'수요포럼 정책 토론회'에 참석한다.
- 수요포럼·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경기대 탄소중립협력단 과 NET ZERO 2050 기후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공공·시민·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인 민관 교류의 장으로 탄소중립 계획 및 기후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.
-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내빈 및 관련학계 전문가,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<탄소중립!! 미래가치와 사회적 책임>을 주제로 발제와 강연,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.
- 오 시장은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·능동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이번 '수요포럼 정책토론회'를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

축사를 전한다.

- 한편, 서울시는 2007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▲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(2007년) ▲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(2008년) ▲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(2022년) ▲건물에너지효율화(BRP) 사업 본격 시행 등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. 특히, 올해는 탄소중립 공동이행의 원년으로 삼으며 지난 2월 27일(월)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'2050 탄소중립 원팀'을 구성한 바 있다.
-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% 감축(2005년 대비), 2030년까지 40% 감축, 2040년까지 70% 감축,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, 서울 온실가스 배출의 95%를 차지하는 건물, 교통, 폐기물 분야에서 ▲친환경건물 확산 ▲친환경자동차 및 충전 기반시설 보급 ▲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「수요포럼 정책 토론회」 주요일정

구 분	행사시간		내 용
개회 및 축사	14:00~14:13	13'	국민의례 및 내빈소개
	14:13~14:16	03'	개회사 (김철수 수요포럼 회장)
	14:16~14:33	17'	축사 및 기념촬영 (서울시장, 권성동 국회의원,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,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, 이윤규 경기대 총장, 장대식 넷제로2050 기후재단 이사장)
발제 및	14:33~15:27	54'	발제 및 탄소중립 사례발표
주제토론	15:27~15:57	30'	주제토론
질의응답	15:57~16:05	7'	질의 응답 및 사진촬영

※ 관련 부서 :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전략팀장 박월진 ☎2133-3523